

글로벌 제주를 위한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46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經濟新聞

※ 대상 기간 : 2025.06.19~2025.06.25

①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1
②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7
▪ 중국	
- 신에너지 자동차 안전 관리 강화	7
- 공장 투어, 문화관광의 새로운 공간을 열다	7
- 압축 공기 에너지 저장 기술, 친환경 에너지의 새로운 발전 진전	8
- 5월까지 친환경 전력 거래량 2200억 킬로와트시 초과	9
- 저고도 지능형 네트워크, 저고도 경제의 도약을 돕다	9
- 산시성, 신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가속화	10
- 석탄 가격 하락세 지속, 석탄 산업의 돌파구 모색	10
- 하계 다보스 포럼 개막 임박, 텐진 고품질 준비	11
- 중국 농업 녹색 저탄소 큰 발전 성과 취득	11
- 베이징 11개 조치 발표, 게임 e스포츠 산업 발전 지원	12
▪ 일본	
- 시즈오카시, 물가 상승 대응 상품권 확대 및 해양문화시설 건축비 상승	12
- 도쿄전력 홀딩스, 도쿄도와 그린 수소 생산 설비 2028년도 가동 목표	13
- '업무 슈퍼'운영하는 고베 물산, 관동에 첫 물류 센터 150억 엔 투자	13

- 크루즈선이 도시를 활기 넘치게 하다: 9개 도부현 기항 최다 14
- 치바에서 'CO2 지역 자급자족' 구상: 연안 지역 배출, 외보 해안 지하에 저장 14
- '태우지 않는 소각장' CO2와 비용도 절감: 나고야대 발 신형 기업, 2026년도에도 .. 15
- 도쿄도, 피서 쉽터 지도 공개: 방재 지도에 반영 15
- 군마 다카사키시, 프랑스 다쏘와 연계 협정: 디지털 기술 활용 도시 조성 16
- 기로에 선 간사이 경제, 오사카 엑스포에서 공세: 미니 심장, 배양육...기술로 지평을 열다 · 16
- 한국계 타미코, 구마모토에 반도체 정밀 세정 공장: TSMC '제2' 공장 염두 17

■ 필리핀

- 필리핀, 2027년까지 경제 성장 둔화 전망 17
- 필리핀, 중동 긴장 속 연료 보조금 및 재외국민 대피 지원 추진 18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필리핀 LNG 시장 진출 추진 18
- 말레이시아, 청년층 디지털 소비로 파산 증가 19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신소재·신기술 분야 공동 산업 플랫폼 구축 추진 19

■ 태국

- 태국, 3년래 최대 수출 증가...미국 관세 부과 앞두고 급증 20

■ 미얀마

- 미얀마, 농촌 인프라 개선에 190억 짜트(약 123억 원) 투자 20

■ 라오스

- 라오스,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추진 21

- 베트남
 - 베트남, 미국 관세 압박에 위조품 단속 강화 21

- 아세안
 - 아세안, 제21차 과학기술혁신장관회의 자카르타서 개최 22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 ✓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3개 부처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안전 관리를 강화 하고,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제품 성능이나 품질을 희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기업의 책임과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강조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침
- ✓ 최근 중국 스마트 공장 견학과 식품 가공 현장 체험 등 공장 투어가 새로운 여가 활동으로 부상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음. 이는 소비자의 변화하는 여가 소비관을 반영하고, 산업 현장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문화 관광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는 현상
- ✓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350MW 압축 공기 에너지 저장 발전소 '닝추이 1호'를 2025년 말 완공 목표로 산둥성 타이안에 건설 중. 이 프로젝트는 폐염층을 활용하여 공기를 친환경 전력으로 변환, 전력망 안정화와 피크 전력 감축에 기여하며 에너지 저장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는 중
- ✓ 올해 5월까지 중국의 친환경 전력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2200억 킬로와트시를 초과하며 빠르게 성장함.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력 시장 구축과 신에너지 발전의 시장 진입 가속화, 그리고 다양한 신형 시장 주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결합된 결과
- ✓ 중국 저고도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이 급속도 추진, 이는 정보통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하여 저고도 비행 활동의 안전과 효율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이며, 또한 스마트 물류, 도시 항공 교통, 응급 구조 등 저고도 경제의 다양한 핵심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인프라 검증 역량을 제공 가능
- ✓ 산시성은 '쌍탄'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및 화력 발전의 안정적 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풍력, 태양광 등 신에너지와의 다중 에너지 보완 및

통합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 이를 통해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고 친환경 전력 송전량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신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 ✓ 최근 원탄 및 코크스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중국 석탄 산업이 심각한 조정기를 맞이함. 이에 석탄 기업들은 석탄 화학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디지털 플랫폼 도입, 그리고 친환경 발전을 통해 '자원의존'에서 '가치 창출'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는 중
- ✓ 세계경제포럼 제16차 신흥 리더 연차총회(하계 다보스 포럼)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텐진에서 개최되며, 텐진시는 90여 개국 약 1800명의 참가자를 위해 맞춤형 환대, 다양한 식사, 6개 기술 문화 관광 노선 등을 고품질로 준비하는 상황
- ✓ 중국 농업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큰 성과를 보이며, 단위 농업 GDP당 온실가스 배출 강도 및 1인당 배출 수준이 주요 경제국 대비 낮음. 또한, 식단 구조 변화를 통해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농산물 자급률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
- ✓ 베이징시는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1개 조치를 발표함. 게임 심사 기간 단축, 국산 게임 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 촉진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활력 증진을 목표로 설정

○ 일본

- ✓ 시즈오카시는 물가 상승 대응책으로 약 15억 엔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프리미엄 디지털 상품권 발행량을 확대하고, 해양 문화 시설 건축비가 당초 예산을 50억 엔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 ✓ 도쿄전력 홀딩스는 도쿄도와 공동으로 2028년도 가동을 목표로 고토구에 태양광 발전 기반의 '그린 수소' 제조 설비를 건설할 계획. 이는 재생

에너지의 간헐적 발전 문제를 해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수소 생산을 통해 탈탄소 사회 실현에 기여할 방안

- ✓ '업무 슈퍼'를 운영하는 고베 물산은 150억 엔을 투자하여 지바현 후나바시시에 냉동/냉장 상품을 위한 자체 물류 센터를 신설할 계획. 이는 관동 지역의 첫 물류 거점으로, 점포 확장에 따른 입출고 능력 강화 및 연간 약 15억 엔의 물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함
- ✓ 일본 전역에서 대형 크루즈선의 기항이 활발해지며, 2024년 국내 기항 횟수가 과거 최대 수준에 근접함. 특히 시즈오카 시미즈항은 항만 개선과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기항이 급증, 고액 소비를 유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상황
- ✓ 치바현은 현 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회수하여 외보 해안 지하에 저장하는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2030년도 가동 목표로 추진 중. 이는 지역의 'CO2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구상
- ✓ 나고야대학에서 파생된 스타트업 크로스이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태우지 않고 탄화시켜 이산화탄소 배출을 없애고 비용을 3~4할 절감하는 신기술 플랜트를 개발 중. 2026년부터 식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여 폐기물 재활용 및 탈탄소에 기여할 전망
- ✓ 도쿄도는 냉방 시설을 갖춘 피서 쉼터인 '쿨링 셸터'의 위치 정보를 도쿄도 방재 지도에 공개함. 이는 열사병 특별 경계 경보 발령 시 개방 의무가 있는 시설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 이용하도록 하여, 폭염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 ✓ 군마현 다카사키시는 3D 이미지 시스템 세계적 기업인 프랑스 다쏘 시스템즈의 일본 법인과 협약을 체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 중. 이는 IT 기업 및 기관 집적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창출하고 미래 도시를 구현하는 방안

- ✓ 간사이 경제는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성장 전환점을 맞이하며, iPS세포 유래 미니 심장, 배양육 등 첨단 기술을 공개하고 있음. 이는 식량 위기 해결 및 재생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
- ✓ 한국 MiCo 그룹의 타미코 구마모토는 2026년 12월 가동 목표로 구마모토현 타마나시에 반도체 및 액정 정밀 세정 공장을 건설 중. 이는 TSMC의 구마모토 제2 공장 건설 등 현지 반도체 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한국계 기업의 일본 진출을 확대하는 움직임

○ 필리핀

- ✓ 세계은행은 필리핀 경제가 글로벌 불확실성과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2025년 5.3%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7년까지 정부 목표치인 6~8%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함. 이에 기업 환경 개선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권고하는 상황
- ✓ 필리핀은 중동 긴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운전자 대상 연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란 및 이스라엘의 재외국민 대피를 성공적으로 완료함. 다만, 두바이에서 고립된 필리핀 근로자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검토하는 중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는 필리핀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에너지 전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 중임. 필리핀 석탄 발전소 폐기 정책에 맞춰 천연가스를 '전환 연료'로 제안하며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하는 중
- ✓ 말레이시아 청년층의 파산 사례가 디지털 소비와 선구매 후결제(BNPL) 플랫폼 이용 증가로 인해 2023년 대비 2024년에 크게 늘어남. 이에 정

부는 금융 교육을 통한 예방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급 개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중

-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신소재 및 신기술 분야에서 공동 산업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견고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모색 중. 양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보유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리적 규모를 뛰어넘는 가치 창출을 기대하는 중

○ 태국

- ✓ 태국의 5월 수출액이 3년래 최대 증가율인 18.4%를 기록하며 급증세를 보임. 이는 미국 관세 부과를 앞두고 중국의 동남아 우회 수출 현상과도 관련이 있으며, 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관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중

○ 미얀마

- ✓ 미얀마 협동조합농촌개발부가 2025/26 회계연도에 115개 마을을 연결하는 187km의 산업용 도로와 305개 교량 건설에 약 190억 짜트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함. 이는 농촌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 라오스

- ✓ 라오스 국회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법 초안 개선안을 논의 중임. 이는 사회복지 대상을 확대하고 재난 시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하며, 복지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

○ 베트남

- ✓ 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여 위조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 가짜 명품 판매 상점들이 폐쇄되는 등 특별 단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완화하려는 베트남의 전략으로 평가되지만 현지 상인들에게는 큰 타격

○ 아세안

- ✓ 아세안은 제21차 과학기술혁신장관회의를 자카르타에서 개최하며,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아세안 과학기술 혁신 실행계획 2026-2035'를 채택할 예정임. 이는 아세안 회원국 간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신에너지 자동차 안전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정보화부 등 3개 부처는 신에너지 자동차 안전 관리 회의를 개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제품 성능 저하를 통한 단기적 비용 절감을 지양할 것을 강조함. 이는 제품 품질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임 - 차량 및 동력 배터리 생산 기업은 제품 설계, 생산, 사후 서비스 전반에 걸쳐 품질 안전 책임을 다해야 함. 또한, 허위 과장 광고를 중단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차량 사용법을 안내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함 - 관련 부서 책임자들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과 안전을 함께 고려할 것을 당부함. 안전 위험 예방 및 해소에 전념하여 산업 발전의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힘쓸 것을 다짐
	<p>○ 공장 투어, 문화관광의 새로운 공간을 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스마트 자동차 생산 라인과 식품 가공 공장 등 과학기술 기업 및 현대 공장 견학이 주말 여가 활동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 소셜 미디어에서는 관련 인증샷이 넘쳐나고 일부 인기 기업은 예약이 어려울 정도임 - 쑤푸빙청 중앙 공장부터 DJI 드론 조립 라인까지,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대중에게 문을 열어 제조 현장을 공개하고 있음. 이는 사람들의 여가 소비관 변화와 도시 문화 공간 및 제조업 상호작용 방식의 발전을 보여줌 - 공장 투어의 공공성은 더욱 확장될 여지가 있음. 일부 도시는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산업 관광과 교육, 문화 관광, 과학 보급을 결합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지식형 체험 경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의 사회적 인정을 높이는 데 기여함</p> <hr/> <p>○ 압축 공기 에너지 저장 기술, 친환경 에너지의 새로운 발전 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 에너지 저장 기술인 압축 공기 에너지 저장은 최근 시장의 높은 주목을 받고 있음. 산둥성 타이안에 건설 중인 중국 에너지 건설의 350MW 압축 공기 에너지 저장 혁신 시범 발전소는 2025년 말 전체 용량 병렬 발전을 목표로 함 - 이 발전소는 세계 최대 단일 압축 공기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로, 공기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전력으로 변환함. 8시간 충전으로 4시간 발전이 가능하며, 연간 4.6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여 20만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량에 해당함 - '닝추이 1호'로 불리는 이 발전소는 타이안 지하 폐염층을 활용함. 전력 사용량이 적을 때 잉여 전력으로 공기를 압축하고, 전력 수요가 많을 때 저장된 고압 공기를 방출하여 전기를 생산함. 이 과정은 전력망의 '피크 전력 감축 및 계곡 채움'을 효과적으로 실현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5월까지 친환경 전력 거래량 2200억 킬로와트시 초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5월까지 중국의 친환경 전력 거래량이 2200억 킬로와트시를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함. 이는 중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력 시장을 구축하며 친환경 전력 거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줌 - 2024년 전국 신에너지 시장화 거래 전력량은 1조 킬로와트시를 돌파하여 전체 신에너지 발전량의 55%를 차지함. 이는 신에너지 발전이 시장에 전면 진입하여 경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함 - 전국 통일 전력 시장의 가속화된 건설과 함께 다양한 주체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 독립형 에너지 저장, 가상 발전소, 부하 통합 사업자 등 새로운 유형의 주체가 빠르게 성장하며 전력 시장의 활력을 높임
	<p>○ 저고도 지능형 네트워크, 저고도 경제의 도약을 돕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고도 지능형 네트워크는 저고도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임. 이는 정보통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하여 저고도 비행 활동에 포괄적인 정보 지원과 서비스 보장을 제공함 - 2025년 세계 이동통신대회에서 여러 기업이 저고도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및 응용 분야를 모색하고 있음. 중국 통신사들은 스마트 물류, 도시 항공 교통, 응급 구조 등 핵심 시나리오에 필요한 인프라 검증 역량을 제공함 - 중국 통신사들은 '1개 기초 플랫폼 + N개 저고도 기초 설비'로 구성된 도시급 저고도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천후, 전공역, 전 목표'의 입체 감지 능력을 형성함. 이는 저고도 작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산시성, 신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시성 다통시의 타산 발전소는 탄광과 발전소가 연결된 밀폐형 석탄 운송 벨트 시스템을 통해 석탄의 현지 청정 전환을 실현함. 이는 석탄과 전력의 통합 개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옴 - 산시성은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 다중 에너지 보완 및 협력 발전 경로를 수립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과 녹색 저탄소 발전을 통합하여 신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함. 현재 산시성의 외부 전력 송전량은 전국 상위권이며, 친환경 전력 송전량은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함 - 산시성은 신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 등 전통 에너지와 신에너지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전력 현물 시장의 실시간 가격 신호는 가장 강력한 '디스패처' 역할을 하여 화력 발전소들이 신에너지에 시장 공간을 양보하도록 유도함 <p>○ 석탄 가격 하락세 지속, 석탄 산업의 돌파구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들어 원탄과 코크스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기업 주문이 줄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등 중국 석탄 산업은 심각한 조정기를 겪고 있음. 신에너지의 부상과 시장 주기의 영향으로 석탄 산업은 변화의 기로에 놓임 - 석탄 주요 생산 지역을 조사한 결과, 석탄 산업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음. 석탄 화학 공정에서 '검은 금'이 '정제된 재료'로 변모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생산 및 판매의 장벽을 허물며, 녹색 발전이 산업 논리를 재편함 -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수급 균형 유지, 수입 구조 최적화, 전력 용 석탄 장기 계약 이행 보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함. 장기적으로는 '규모 확장'에서 '품질 및 효율'로 전환하고, 생산 능력 최적화,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하계 다보스 포럼 개막 임박, 텐진 고품질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포럼 제16차 신흥 리더 연차총회(하계 다보스 포럼)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텐진에서 개최됨. 9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약 1800명의 손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텐진시는 고품질로 각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임 - 텐진시는 참가자들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 접대 계획을 수립하고 접대 절차를 최적화함. 식품 및 케이터링 측면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식습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별화된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심한 준비를 하고 있음 - 포럼 기간 동안 텐진 해관은 참가자들의 입국을 전적으로 보장할 것임. 전용 통로를 마련하고 다국어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하며, 유연한 근무 시간 연장을 통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도움 <p>○ 중국 농업 녹색 저탄소 큰 발전 성과 취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농업 과학원 농업 경제 및 발전 연구소와 국제 식량 정책 연구소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농업은 '쌍탄' 목표 달성 과정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둠. 농업 탄소 흡수원 증가 속도가 배출원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름 -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중국의 단위 농업 GDP당 온실가스 배출 강도와 1인당 배출 수준은 현재 미국, 서유럽, 브라질 등 주요 경제체와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음. 향후 합리적인 식단 구조 전환을 통해 농산물 공급 압력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음 - 2021년 중국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9.31억 톤으로 2005년 대비 8.51% 증가한 반면, 농업 탄소 흡수원은 1.06억 톤으로 158.45% 증가함. 2020년 단위 농업 GDP당 온실가스 배출 강도는 2005년 대비 75.25% 감소하여 '쌍탄'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베이징 11개 조치 발표, 게임 e스포츠 산업 발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시 위원회 선전부 등 12개 부문은 '베이징시 게임 e스포츠 산업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지원 방안(잠정)'을 공동으로 발표함. 11개 조치를 포함하며, 더욱 강력한 정책 유도과 지원을 통해 시장 활력을 높이고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목표임 - 베이징시는 게임 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국산 시범 온라인 게임의 신청 지도 및 게임 전문가 심사 인력을 강화하여 심사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것임.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게임 e스포츠 산업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할 방침임 - 또한, 베이징시는 e스포츠 행사 개최, 경기장 건설 및 운영, 기업의 해외 진출,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할 것임. 올바른 내용 지향과 가치 지향을 게임 e스포츠 산업 발전 전 과정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일본	<p>○ 시즈오카시, 물가 상승 대응 상품권 확대 및 해양문화시설 건축비 상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즈오카시는 물가 상승 대책으로 1억 5600만 엔의 6월 추가 보정 예산안을 발표함. 프리미엄 디지털 상품권 발행량을 기존 계획보다 약 10만 구좌 늘린 약 70만 구좌로 확대하며, 재원은 국가의 중점 지원 지방 교부금을 활용함 - 이 상품권은 시내 약 3700개 소매점 및 음식점에서 사용 가능함. 5000엔을 구매하면 6250엔어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예산 편성으로 신청자 전원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난바 교지 시장은 해양문화시설 건축비가 당초 약 90억 엔에서 50억 엔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시설 운영비의 절반을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 증가는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음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도쿄전력 홀딩스, 도쿄도와 그린 수소 생산 설비 2028년도 가동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전력 홀딩스는 도쿄도와 공동으로 고토구 중앙방파제 외측 매립 처분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수소 제조 설비 등을 정비할 계획을 발표함.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을 활용하여 '그린 수소'를 제조하는 것이 목표임 - 이 프로젝트는 2025년도 내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도 내 착공, 2028년도 중 운전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도쿄도 산업노동국이 공모한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그린 수소는 제조 및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음 - 태양광, 풍력 등 일부 재생 에너지는 발전량이 계절 및 날씨에 따라 변동하는 문제가 있음. 수소는 장시간에 걸쳐 대량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재생 에너지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음
	<p>○ '업무 슈퍼' 운영하는 고베 물산 관동에 첫 물류 센터 150억 엔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슈퍼'를 운영하는 고베 물산은 150억 엔을 투자하여 지바현 후나바시시에 냉동 냉장 상품을 취급하는 물류 센터를 신설한다고 발표함. 이는 점포 확장에 발맞춰 상품 입출고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고베 물산이 관동 지역에 자체 물류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후나바시시 약 1.9만 제곱미터 부지에 4층 규모의 '후나바시 물류 센터(가칭)'를 건설하며, 2026년 10월 착공하여 2029년 1월 가동을 목표로 함 - 이 센터는 운송 효율 개선을 통해 연간 약 15억 엔의 물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함.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1108개 점포를 운영 중인 업무 슈퍼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음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크루즈선이 도시를 활기 넘치게 하다: 9개 도부현 기항 최다, 시즈오카 시미즈항 고액 소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각지의 항구에서 대형 크루즈선의 기항이 활발해지고 있음. 국토교통성의 2024년 국내 기항 횟수 잠정치는 2479회로, 과거 최다였던 2018년의 85%까지 회복되었으며, 9개 도부현에서 최다 기록을 갱신함 - 시즈오카현은 기항 횟수가 58회 증가하여 91회를 기록,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며 과거 최다를 기록함. 대형 선박 접안을 위해 항구를 개선하고 관민이 함께 유치 활동을 펼친 시즈오카시의 시미즈항 등이 도시를 활기 넘치게 하고 있음 - 시미즈항에서는 크루즈선 승객들이 무료 셔틀버스나 택시, 도보로 항구 주변을 방문하여 활기를 더함. 쇼핑가에서는 기모노 소개, 칼 연마 시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고액품 구매가 증가하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p>○ 치바에서 'CO2 지역 자급자족' 구상: 연안 지역 배출, 외보 해안 지하에 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바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회수하여 외보 해안 지하에 저장하는 'CCS' 사업 구상이 추진됨. 제철 및 에너지 개발 3개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하여 2030년도 가동을 목표로 하며, CO2 배출량 상위 지역의 '지역 자급자족'에 관심이 집중됨 - 이 '수도권 CCS 프로젝트'는 치바현에서 배출되는 CO2를 현 해안 지하에 가두는 사업임. INPEX, 닛테츠, 간토 천연가스 개발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며, 철강업 등에서 배출되는 CO2를 회수하여 파이프라인으로 운송 후 지하 1000미터 이상 지층에 저장할 계획임 - 사업화를 위해서는 외보 해역의 시굴을 통해 CO2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지층의 존재를 확인해야 함. 또한, 지역 주민과 어업 관계자 등 이해 관계자와의 설명 및 협의를 거쳐 파이프라인 경로를 결정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태우지 않는 소각장’ CO2와 비용도 절감: 나고야대 발 신흥 기업, 2026년도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고야대 발 스타트업 크로스이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태우지 않고 탄화시키는 플랜트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이 플랜트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탄화 비용도 일반 소각에 비해 3~4할 저렴함 - 플랜트는 진한 황산이 유기물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활용함. 촉매가 포함된 플랜트에 폐기물을 투입하고 180도에서 가열 및 교반하면 태우지 않고 탄화할 수 있음. 이는 나고야대 고바야시 다카유키 준교수의 연구를 기반으로 함 - 생산된 탄은 콘크리트 원료,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흑연 재료, 토양 개량제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크로스이는 2026년부터 플랜트 판매를 목표로 하며, 식품 공장 등에 납품하여 식품 유래 산업 폐기물 재활용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p>○ 도쿄도, 피서 쉼터 지도 공개: 방재 지도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도는 냉방 시설을 갖춘 피서 쉼터의 위치 정보를 도쿄도 방재 지도에 공개함.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위치, 주소, 개관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 열사병 예방을 촉진함 - 공개된 정보는 기후변화 적응법에 따라 시구촌이 지정한 ‘지정 열기 대피 시설(쿨링 셸터)’로, 열사병 특별 경계 경보 발령 시 개방 의무가 있음. 현재 도쿄도 내에는 1729개 시설이 있으며, 2024년도 제도 시작 이래 약 200개 시설이 증가함 - 도쿄도 방재 지도 외에 도쿄 소방청 지도 및 도쿄도 기후변화 적응 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함. 고이케 유리코 지사는 지도를 활용하여 더위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취해달라고 당부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 군마 다카사키시, 프랑스 다쏘와 연계 협정 디지털 기술 활용 도시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마현 다카사키시는 3D 이미지 시스템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프랑스 다쏘 시스템즈의 일본 법인과 연계 협정을 체결함. 다쏘의 지식과 조언을 얻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 - 협정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신성장 산업 창출, 차세대 인재 육성, 편리한 주민 서비스 제공, AI 활용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최첨단 기술 활용 도시 조성 추진 등 5개 분야에서 협력할 것임 - 다카사키시는 구 육군 츠츠미가오카 비행장 부지에 IT 기업 및 기관이 모이는 도시를 건설하는 구상에서도 협력할 예정임. 이는 다카사키시의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일본	<p>○ 기roye 선 간사이 경제, 오사카 엑스포에서 공세: 미니 심장, 배양육...기술로 지평을 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사이 경제가 성장을 위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서는 iPS세포 유래 미니 심장 등 첨단 기술이 공개되며 사업화를 향한 도약을 기대함. 한때 번성했던 전기 제조업체들은 사업 재편을 통해 반격을 시도 중임 - 오사카 엑스포의 파소나 파빌리온에서는 iPS세포로 만든 '미니 심장'이 고동치는 모습이 전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음. 이는 오사카대학에서 파생된 켈리프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코쿠-젠 지지대에 iPS세포 유래 심근 세포를 심어 프로토타입으로 완성함 - 재생 의료 기술, 배양육, 미래형 작업 로봇 등 다양한 신기술이 엑스포에서 소개됨. 이는 지구 규모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간사이 지역에 사람과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계 타미코, 구마모토에 반도체 정밀 세정 공장: TSMC '제2' 공장 염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MiCo 그룹의 KoMiCo 일본 법인인 타미코 구마모토가 2026년 12월을 목표로 구마모토현 타마나시에서 반도체 및 액정에 대한 정밀 세정 공장을 가동할 예정임. 이는 TSMC의 구마모토 제2 공장 건설 계획에 따라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 타미코 구마모토가 일본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정밀 세정 외에 고온으로 녹인 재료를 부품 등에 분사하여 피막을 형성하고 내구성을 높이는 '용사 코팅' 설비도 도입할 계획임 - 타마나시 미즈카와 산업단지 내에 약 8600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하고 최대 약 30억 엔을 투자하여 2층 규모의 공장을 2025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임. 타미코 구마모토는 TSMC 제2 공장 외에 소니그룹 등 일본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영업할 것임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2027년까지 경제 성장 둔화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은행은 필리핀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6~8%를 밑도는 5.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2026년과 2027년에도 소폭 상승하겠지만, 여전히 정부 목표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임 - 세계은행은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과 수출, 서비스, 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여건 악화가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함. 2025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둔화된 모습을 보임 - 세계은행은 필리핀 정부에 경제 성장 보호 및 가속화를 위해 기업 환경 개선과 재정 여력 확보에 집중할 것을 권고함. 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 제고를 위한 세제 개혁과 외국 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p>○ 필리핀, 중동 긴장 속 연료 보조금 및 재외국민 대피 지원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중동 긴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운전자들에게 연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이번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중교통 운전자 지원과 유사하게 유가 불안정으로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을 돕는 것이 목표임 - 한편, 필리핀 정부는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철수를 희망하는 필리핀인 대피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힘. 전쟁으로 인한 공항 폐쇄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해결책을 마련하여 대피를 지원하고, 강제 대피 명령 없이 자율적 판단 정책을 유지함 - 두바이에서 18명의 해외 필리핀 근로자가 고립된 사건이 발생하여, 필리핀 정부는 출입국 관리소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여부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임. 이들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요르단 암만행 예정이었으나 지역 분쟁으로 발이 묶인 상황임
말레이시아	<p>○ 말레이시아, 필리핀 LNG 시장 진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가 필리핀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함. 페트로나스 CEO 에즈란 마하지르는 필리핀의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페트로나스는 필리핀의 석탄 발전소 폐기 정책에 발맞춰 천연가스를 '전환 연료'로 제안함. 또한, 상호 이익이 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여러 필리핀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임 - 페트로나스는 4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10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연간 4천만 톤 이상의 글로벌 LNG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2017년부터 동남아시아에 약 200건의 LNG 화물을 공급하며 역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있음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p>○ 말레이시아, 청년층 디지털 소비로 파산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나 여 말레이시아 청년체육부 장관은 18~40세 말레이시아인의 파산 사례가 2023년 727건에서 2024년 877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이는 온라인 쇼핑 용이성, 소셜 미디어 영향력, 선구매 후결제(BNPL) 플랫폼 인기 증가에 기인함 - 쇼핑의 BNPL 계열사인 에스페이레이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사치성 구매가 아닌 재정 유동성 확보를 위해 BNPL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답변함. 장관과 중앙은행 부총재는 복리 부채 및 상환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젊은 이용자들이 장기적 재정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 한나 여 장관은 청년층의 장기적 재정 문제 예방을 위한 긴급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말레이시아는 2023년 파산법을 개정했으나, 정부는 법 개정보다 교육을 통한 예방이 더욱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함
	<p>○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신소재·신기술 분야 공동 산업 플랫폼 구축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우 친 통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차관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 공동 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견고한 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양국은 GDP의 20% 이상을 제조업이 차지하며, 실리콘카바이드, 질화갈륨, AI, 양자컴퓨팅 등 신소재 및 신기술 분야에 주력하고 있음 - 리우 차관은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등 규제 기관들의 정책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싱가포르는 견고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이를 보완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공동 생태계 구축에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함 - 리우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리적 규모를 뛰어넘는 가치를 창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말레이시아중화총상회와 싱가포르중화총상회가 양국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력 강화를 기대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p>○ 태국, 3년래 최대 수출 증가...미국 관세 부과 앞두고 급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의 5월 수출액이 3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8.4% 증가해 2022년 3월 이후 최대 증가율을 달성함. 태국 상무부 장관은 수출이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입도 299억 달러로 18% 증가하여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36%의 관세 부과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정부 차원에서 관세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추진 중임. 태국 상무부 사무차관은 기본 세율을 1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협상 성공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 - 태국 상무부는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분석함. 또한, 중국이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우회 수출 현상을 예의주시하며 지정학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임
미얀마	<p>○ 미얀마, 농촌 인프라 개선에 190억 짜트(약 123억 원)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 협동조합농촌개발부는 2025/26 회계연도에 115개 마을을 연결하는 187km의 산업용 도로와 교량 305개 건설에 190억 짜트(약 1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연방 정부 자금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 인프라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임 - 카친주, 카야주, 친주, 라카인주, 북부 산주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인프라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농촌개발국은 현재 건설 공사 입찰을 진행하며 지역별 인프라 수요 해결에 나서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24/25 회계연도에는 213억 3600만 짜트(약 139억 원)을 투자하여 328km의 산업용 도로, 마을 도로, 교량 건설을 완료함. 지난 3월 만달레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파손된 도로와 교량에 대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 회계연도 내 완공을 목표로 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라오스	<p>○ 라오스,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찰룬 야파오허 국회 부의장이 주재한 국회 제9차 정기회의에서 사회복지법 초안 개선안을 논의함. 노동사회복지부 차관은 모든 라오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법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함 - 케손 사야봉 국회의원은 제6조를 확대하여 라오스 국민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는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자선 활동과 단합을 증진할 것을 제안함. 또한, 제19조 개선을 통해 재난 시 지역위원회 구성, 핫라인 설치 등 사회복지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 캄파싯 텡봉사 국회의원은 복지 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함. 자금 출처 감시를 위해 자금세탁방지국 참여를 제안하며,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한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을 지지함
베트남	<p>○ 베트남, 미국 관세 압박에 위조품 단속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정부는 위조품 유통 허브라는 미국의 지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46%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위조품 단속을 강화함. 이 조치로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주요 시장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상점과 노점상이 폐쇄됨 - 베트남 통상부는 상품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공안부는 8월 중순까지 3개월간 위조품 특별 단속을 실시함. 이 단속으로 800만 달러 상당의 위조품 7천여 건이 적발되었으며, 사이공스퀘어에 서는 가짜 롤렉스 시계 1천 점이 압수됨 -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 방문 연구원은 이번 단속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완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려는 베트남의 전략이라고 평가함. 그러나 현지 상인들은 단속으로 인한 영업 타격과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아세안	<p>○ 아세안, 제21차 과학기술혁신장관회의의 자카르타서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까오 끄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은 2025년 6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세안 과학기술혁신장관회의(AM MSTI)에 참석함. 이 회의는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 청장이 주재하며, 아세안의 과학 기술 및 혁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장관들은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 계획인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실행계획 2026-2035를 채택할 예정임. 회의는 '아세안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강화: 지역 영향력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주제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함 - 까오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 청장과 필리핀 과학기술부 장관과 차례로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임. 이 회담을 통해 양측은 협력 강화와 지역 과학기술혁신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며 아세안의 혁신 역량을 증진할 계획임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